



대한민국 에이스 윤·석·민 트리플 크라운 쫓는다

〈다승·방어율·탈삼진〉

파워피칭에 철저한 경기준비·해외진출 목표 더해 작년보다 확 달라져

KIA 에이스 윤석민은 13일 한화해 상 대로 시즌 16번째 승리를 챙기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굳게 지켰다. 지난해 자해 소동 속에 6승을 올리는데 그쳤던 '미운 오리 새끼' 윤석민은 2011시즌 다승·방어율·탈삼진 부문은 물론 승률까지 4개 부문에서 1위를 달리며 '화려한 백조'로 거듭났다. 잘나가는 윤석민 뛰가 달라졌을까? <정교함보다 파워> 윤석민은 '파워'를 올 시즌 달린 성적의 비결로 꼽는다. 공에 힘이 붙으면서 150km가 넘는 강속구와 140km이상의 고속 슬라이더의 위력은 배가 됐다. 윤석민은 전지훈련 기간 3차례 연습경기에서 5이닝 4실점으로 7.20의 방어율을 기록했었다. 사사구 3개, 폭투도 하나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는 나름대로 윤석민의 계산된 행보였다. 윤석민은 "이번 캠프에 마음껏 던지고 싶은 대로 공을 던졌다. 엉망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컨트롤 보다는 파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힛치 공을 뿌렸다. 겨우 내 힘을 키운 뒤 컨트롤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시즌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민은 지난해 사진과 좋은 피칭을 했을 때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았다. 윤석민은 "컨트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투구할 때 팔을 최대한 뒤로 끌고가지 못하고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모습이였다. 전지훈련때도 컨트롤 위주로 준비가 이뤄졌는데 그러다 보니 시즌 중 파워 피칭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볼 배합같은 것은 예전과 큰 변화가 없다. 힘을 키우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에이스라는 책임감> 손가락 골절, 사구 논란 등 윤석민에게 2010년은 최악의 해였다. 하지만 최고의 성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2011년도 윤석민에게는 "가장 힘든 해"다. 윤석민은 "좋은 성적이 없지만 가장 힘든 시즌이다. 한 시즌을 보내다 보면 지쳐서 별 생각 없이 마운드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단 한 경기도 방심하지 않았다. 한 경기 한 경기 힘을 다해 준비를 했다. 최선을 다해서 공을 던졌다"고 말했다. 전력을 다한 피칭에는 '에이스'라는 무게가 있었을 것이다. 윤석민은 "지난해 성적도 좋지 않았고

팀에 너무 많은 피해를 끼쳤다. 에이스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러웠다"며 "또 14승을 한 후에 9승, 6승을 했다. 그냥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 윤석민은 WBC와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우완 투수로 자리매김을 했다. 7년차 윤석민은 내년 시즌 구단 동의가 있다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하다. 윤석민은 "지난해 약재가 겹치면서 새로운 곳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내 가능성을 시험도 해보고 싶었다. 해외진출이 눈앞에 보이니까 욕심이 들었다. 올 시즌 성적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막상 기대하고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더 신중해지는 것 같다. 해외 진출은 시즌이 끝난 뒤 생각할 문제다. 올 시즌 또 다른 목표는 팀의 우승이다. 우승 팀 에이스로 시즌을 마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동열이 말하는 '레전드 최동원'

“라이벌 아닌 우상이자 롤모델”

'불세출의 투수' 최동원 전 한화 이글스 코치가 14일 지방으로 별세하면서 고인과 선동열 전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선수 시절 벌인 당대 최고의 라이벌전을 떠올리는 프로 야구팬들이 많다. 영남·연세대(최동원)-호남·고려대(선동열) 등 출신 지역과 학교까지 묘하게 대비되면서 둘의 맞대결은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커브(최동원)와 슬라이더(선동열)로 대표되는 둘의 '명품 변화구'에 타자들의 방망이가 헛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응원하는 팀을 떠나 팬들에게는 큰 재미였다. 1986년 4월 첫 대결에서는 선동열이 프로 통산 첫 완봉승으로 1-0 승리를 거뒀다. 최동원은 송일섭에게 3회 솔로 홈런을 맞아 완투패를 당하며 연승행진을 12경기에서 멈췄다. 4개월 뒤에는 최동원이 2-0 완봉승으로 설욕했다. 선동열은 완투패를 떠안았지만 수비 실책으로 인한 비자책 패배였다. 그리고 1987년 5월16일 부산 사직구장. 당시 스톱이후 살로 기량이 절정에 올랐던 최동원과 겁없는 24세의 프로 3년 차인 선동열은 한국 프로야구에 전설처럼 남아있는 명승부를 엮어냈다. 이날 경기는 연장 15회까지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혈투 끝에 2-2로 승부가 갈리지 않았다. 마지막 격돌에서는 승부를 못 내면서 두 사람 간의 대결은 1승1무패로 남아 있다. 이날 최동원과 선동열은 나란히 선발로 나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선동열은 232개, 최동원은 209개의 공을 던

한국시리즈 나홀로 4승 따라 할 수 없는 대기록 최고의 명승부는 1987년 15회 연장혈투

졌다. 선동열의 기록은 한 경기 최다 투구 수다. 14일 빈소를 찾은 선동열 전 감독은 15이닝 무승부 혈투에 대해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경기는 잊을 수 없다. 그때 서로 지지 않으려고 둘 다 200개 이상 투구를 한 자존심 대결이었는데 함께했던 선배가 세상을 뜬 것이 비통하다"고 슬픔을 표현했다. 선 전 감독은 "프로에서는 라이벌이라고 부르지만 최동원 선배는 존경했던 나의 우상이었다"며 "어렸을 때 선배를 보면서 이렇게 야구 선수를, 투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롤모델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함께 뛰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결승전에서 선배가 '자신감을 갖고 마운드 위에서는 본인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공을 던지라'고 힘이 되는 조언을 해주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 전 감독은 "선배는 내가 갖지 않은 연투 능력과 대담성을 지녔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한 수 위였다"면서 "한국시리즈 4승은 내가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고인의 업적을 높게 평가했다. /연합뉴스



유럽프로축구 챔피언스리그 독일 보루시아 도르트몬트의 로버트 레완도우스키(왼쪽)가 14일 홈구장에서 열린 이스타나과의 챔피언스리그 F조 경기에서 슈팅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 독립 야구팀 생긴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야구팀이 출범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야구회관에서 국내 최초의 독립야구팀 '고양원더스'(가칭) 창단 협약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본능 KBO 총재를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과 허민 독립야구팀 대표가 참석해 서명할 예정이다. 독립야구

팀은 KBO 리그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프로구단이다. 고양원더스는 고양시와 인터넷 기업 원더힐딩스가 공동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야구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고양원더스는 10월 말까지 감독과 코치진, 프런트를 구성하고 11월 말 트레이아웃을 통해 30명의 선수를 선발한다. 12

'고양 원더스' 12월 창단 내년 2군리그와 번외경기 월 초 창단식을 하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동계 전지훈련을 거친 후 내년 시즌부터 프로야구 2군리그 팀들과 번외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고양원더스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하거나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 등 재기를 꿈꾸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총 17만원 ⇒ 12만원
- ▶ 만도네비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7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51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4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선명함의 한계를 넘어 아이나비 최초의 Real HD 블랙박스

- ▶ 1채널 19만원 ⇒ 16만원
- ▶ 2채널 38만원 ⇒ 33만원
- ▶ Real HD 11채널 26만원 ⇒ 24만원
-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사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 후방카메라 13만원 ⇒ 9만원부터
- ▶ 사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스마트의 미래를 여는 기술선도기업 이지카!

한층 업그레이드된 ET!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센팅, 3M코팅, 모비스센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너,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퀴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악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오거리 | 임선병역 | 허남
 임동오거리 | 신안사거리 | 임동오거리
 한국카렌드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진)